

5월 개최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본격 준비

군, 성공 개최 운영착수보고회…2~7일까지 해변공원 일원서 열려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부계획 실행을 위한 전시연출·박람회장 운영

·이벤트 대행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5월2일부터 7일까지 완도 해변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해조류산업 발전과 K-Seafood 세계화를 꾀하는 산업형 박람회로 치러진다.

전시 연출 분야는 완도해조류센터를 해조류 이 해관으로 새롭게 단장해 해조류와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몰입형 영상과 인터랙티브로 구현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저탄소 퍼포먼스, 친환경 물병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고 박람회 기간에 해조류·바다낚시 체험 등도 선보인다.

산업·홍보관은 공공기관, 대기업, 수출기업 등이 60개 부스를 마련해 해조류산업과 수산가공 제품 홍보에 나선다.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와 국제학술포지업도 개최해 미래 해양산업 신소재인 해조류의 가치에 대해 논의한다.

이범우 완도군 부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박람회 개최를 통해 해조류 본고장인 완도군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오는 2월 도시민 유학생 가족이 입주할 영광 군남 유학마을 전경.

‘영광에서 살아가기’ 수료자 정착 돕는다

5가구 모집 주거 임차료 1년 지원

영광군이 ‘영광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 수료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 주거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도시민 수료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5가구를 모집해 가구당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120만원의 지원한다.

임차료가 기준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며 기준액보다 적으면 실제 납부한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영광에서 살아가기’ 수료자 중

만 18세 이상 도시민으로 2022년 1월1일 이후 영광군으로 전입해 관내 주택을 2년 이상 임차한 경우다.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은 2월10일까지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주거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라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군, 청년부부에 최대 500만원 지원…3년간 3회 지급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영암군이 신혼부부 경제부담 완화와 청년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을 위해 청년부부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2026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번 지원은 결혼장려금은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3년간 3회로 나눠 지

급된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이고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영암군민이어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중 누구라도 결혼축하금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

인신고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금강저수지 일원 ‘빛의 수변공원’ 조성 본격 착수

황톳길·조명 설치 등 19일 착공

해남군의 진산(鎭山)인 금강산 금강저수지 일원에 빛의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수변공원은 금강저수지 주변에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되고, 내부에 데크길도 조성된다. 또 수변 전망 쉼터와 야간 조명을 설치해 야간 산책이 가능한 명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9일부터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 안전을 위해 금강저수지 입구부터 체련공원 구간을 단계별로 진입 통제할 예정이다.

통제시기는 대형장비가 반입되는 19일부터 21일까지와 주요 자재가 반입되는 2월과 4월 중 예정되어 있다.

통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해갈 방침이며, 통제기간은 금강습지를 통해 우회하여 산책로를 이용하도록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해남 금강산은 계곡이 깊어 사시사절 푸른 동백숲과 함께 일 년 내내 계곡 사이로 물이 흘러 해남 사람들의 중요한 휴식처가 되고 있다. 금강저수지 주변은 데크와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 걷기와 산책을 즐기는 군민들로 연중 이용객들이 북비는 곳이 기도 하다.



금강산 금강저수지 일원 둘레길.

군은 군민들의 힐링쉼터 확충과 함께 해남읍권의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금강산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해남읍권의 숙박 음식점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야간 조명과 산책로 추가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처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사가 빠르게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농업대학 2개 특화반 교육생 50명 모집

무화과·전통주 특화 교육

2월 13일까지…교육비 무료

영암군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제19기 영암농업대학’ 교육생을 오는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영암농업대학은 지역 특화 품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기 교육 과정으로, 농업인들의 전문성 강화와 소득 증대를 돕는 지역 농업 교육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올해 개설되는 과정은 ▲무화과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등 2개 과정이다. 모집 인원은 과정별로 25명씩 총 50명이며,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교육 희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단순 이론 강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실습과 선진지 견학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무화과 과정은 재배 기술부터 병해충 관리, 가공 기술까지 전 과정을 다루며 고품질 무화과 생산에 집중한다.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 취득 과정은 전통주 제조 실습과 더불어 실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지역 특화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비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어 농가 부담을 줄였다. 교육 신청 및 상세 안내는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암농업대학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영암의 자랑인 무화과와 전통주 등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며 “혁신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농촌지도 시범사업 54억 투입

59개 사업 21일까지 신청

해남군이 오는 21일까지 2026년도 농촌지도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 해남군 농촌지도 시범사업은 총 54억67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6개 분야 59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농업 여건에 맞춘 신기술 보급과 현장 실증 중심으로 추진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지원 ▲해남 농산물 활용 히트상품 개발 지원 ▲노동력 절감 배 재배단지 조성 ▲노지채소

신기술 실증 시범 ▲해남땅끝한우 TMR사료 급여 기계화 시범 ▲고구마 조직배양묘 증식·공급 거점 농가 육성 등이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소를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등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각 사업별 신청 요건에 맞는 서류를 구비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고보조가 포함된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자는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인 국고보조 시범사업 이해 및 실천 사항을 사전에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 전까지 미이수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 대반동·선창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

목포시가 최근 대반동·선창권역을 대상으로 제2차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 사업에 대해 부서별 보고가 이뤄졌으며, 사업별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향토음식진흥센터 건립, 대반동 야간경관 디자인 개선, 목포항 여객부두 추가 확충, 목포 내항 소규모 항만재생, 유달유원지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 유달산 서면 유원지 개발,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 조선내화 구 목포공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서산-은금 재정보 축진지구 사업 등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대반동·선창권역은 관광과 도시재생이 어우러진 목포의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이 대반동·선창권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핵심 공간”이라며 “개별 사업을 단편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 달라”라고 주문했다.

목포시는 삼학도권역을 비롯해 원도심·북항권역, 섬권역, 갯바위·평화광장권역, 향만권역, 대양산단권역, 하당권역 등 총 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무안군,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자동 재충전

무안군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가 가운데 발급 자격을 유지한 대상자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2026년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시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이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무안군은 2026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년 대비 1만원 인상에 1인당 15만원의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만 13~18세 청소년기 대상자와 만 60~64세 생애전환기 대상자의 경우 추가 지원이 적용돼 1인당 1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이용기간은 2026년 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정대술 무안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군민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급과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